

때에는 절대로 성교를 피해야 되는 것이다.

또 이 탄생에 있어서는 부부 저마다의 과거세부터의 인연이나 성교시의 상념 등을 수호신이 참작해서 그 자녀를 점지시켜 준다.

또 환생(還生)의 연한(年限)은 그 영혼의 인연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지만, 근래 그 연한이 매우 단축되어 사후(死後) 2·3년~7·8년만에 환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영(靈) 그 자체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魂<유계에 축적된 상념, 보통 영혼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이 백(魄<육체로 되는 원자>)을 집합시켜서 육체계에 환생하여 오는 것이다. 그 모든 원동력(原動力)은 그 사람의 원령(元靈), 이른바 직령(直靈)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수호신이 그 탄생을 지휘한다. 그러므로 A라고 하는 인간이 육체계에 환생하여 생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생(前生)에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A라는 영혼의 상념은 유계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화에서의 이중영사(二重映寫)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념은 영·유·육(靈·幽·肉)의 삼계(三界)를 꿰뚫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된다. 그 상념활동의 힘은 분령(分靈)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근원(根元)은 직령(直靈)에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설

명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우므로, 보통은 영혼의 환생 또는 전생(轉生)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라도 납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현계(現界)를 현세(現世)라 부르고 있는 것은 저승의 모습이나 상태를 마치 사진으로 찍듯이 나타낸다는 뜻이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사세(寫世)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영계로부터 사진처럼 찍어 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문(2) : 전생(轉生)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려되고 있는 산아제한(産兒制限)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 산아제한의 문제는 종교적인 큰 문제로서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종교가가 절대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근래 일부의 종교가만 찬성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볼때는 아직도 반대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종교가가 많은 것은 역시 영혼의 진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하느님의 의사에 배치(背馳)된 것이라는 이유로서의 반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산아제한에 대하여는 다른 종교가처럼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왜냐 하면, 이

육체세계의 인간의 거의 전부가 아직도 신불(神佛)의 참뜻과 인간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어린 아이는 하느님으로부터 태어 나오는 것이므로, 자기들의 형편에 의해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 정령(精靈)의 진화를 저해하며, 하느님의 뜻에 배반되는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 봤댔자, 현실적으로 적은 수입으로써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시키기란 매우 힘드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산아제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현재 7·8명의 자녀가 있는 데다 또 임신을 한다면 큰 일이다, 라면서 임신을 두려워 하는 가정이 많으며, 또 혈통적으로 좋지 않은 자녀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아제한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前記)와 같은 말로써 자연(自然)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한다면, 그 부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겁을 주고, 또 인간의 자유성(自由性)을 속박하는 것이 되어 도리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성행위(性行為)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만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의 교류를 위해 또 상념의 교류를 위해 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장점, 단점이 이 행위에 의해 잘 믹스되어서

서로간의 감정을 조화시키고, 양자(兩者)의 일체감을 체득케 하고 나아가서는 인격을 높여 가는 행위여야 한다. 산아(産兒)는 그 일부의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만이 성행위의 목적이라면 동물계에 발정기(發情期)가 있듯이 정기적으로만 욕정을 일으키도록 인간도 창조되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임신 이전의 산아제한을 악행위(惡行爲)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제한을 한다면 그 제한에 의해 그 가정을 보다 행복하게 타개하여 나갈 것을 소망할 따름이다. 또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산아제한 같은 것은 하지 않고도 자기 가정은 꼭 알맞게 필요한 자녀만이 생겨서 훌륭하게 길러 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오도(精神的 悟道)로 들어가 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3) : 사람의 인생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답 : 사람의 인생은 과거세의 인연에 따라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수호의 신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경우, 또는 착한 의지력이 강한 경

우, 또는 조상이나 부모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후천적으로도 운명이 수정된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수호의 신령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기념(祈念)하십시오, 라는 것이다. 수호령, 수호신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리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순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직접 신불(神佛)에 대한 감사가 되므로, 자기가 과거세부터 범하여온 악상념, 악행위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일단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의 나쁜 운명도(착한 행위, 착한 상념에 따른 좋은 운명은 그냥 그대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나위도 없다) 악연(惡緣)을 만나지 않고, 또 그 과(果)가 나오지 않도록, 설령 나오더라도 불행이 가볍게 끝나도록 인도해 주므로, 그 운명은 수호의 신령에 의해 수정(修正)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불에게 소박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구원 받는 길인 것이다.

의지력이 강한 경우, 이것도 진리에 소탈함이 그 근저(根柢)에 없으면 의지력만으로는 정해진 운명을 고쳐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 착한 일이라고 말하며, 자기도 좋은 일이라고 믿어지는 일을 그 의지력에 의해 철저히 실행하여 가면 운명은 달라

진다.

조상이나 부모가 사람들을 구원한 경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상념이 자연히 그 자손의 악인연의 현상화(現象化)를 악화시켜 준다. 또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영혼인 경우는 영계에서 직접 응원하면서 수호령처럼 그 사람을 인도하여 준다.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는 별도로 운명수정의 힘이 된다.

그 이치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慈悲)에 넘치는 참된 행위를 하고, 남을 구원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책(自責)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지양하면 운명은 호전되기 마련이다.

문(4): 전생(轉生)하는 사람과 전생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디가 어떻게 다르니까?

답: 이젠 육체계에 환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인간이란 신불과 일체라는 자각을 하고 행위도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령(直靈) 그 자체와 일체이므로, 더 이상은 육체계에 살면서 인연을 초월하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는 까닭에 다시는 육체계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육체계를 주재(主宰)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탄생하는 사람도

있다. 불, 보살(佛菩薩)이 그 좋은 예(例)이다.

또 아직은 육체해탈의 경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영계에서도 나머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인연의 세계를 초탈(超脫)할 수 있다고 신불로부터 인정 받은 사람도 전생(轉生)하지 않는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전생(轉生)하여 참 인간을 알기 위한 경험을 쌓아 가는 것이다.

문(5) : 남성이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여성이 남성으로 그 성(性)을 바꿔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답 :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전생(前生)에서 여성으로서의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남성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하고 골돌히 생각한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혹은 인연해탈에의 경험을 쌓기 쉽게 하여 주기 위해 수호신이 성별(性別)을 바꾸어서 재생(再生)케 한다.

남성이면서도 극히 여성다운 사람, 여성이면서도 남성처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생(前生)과 금생(今生)과의 성별이 거의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다.

영(靈) 자체에는 남녀의 별(別)이 없으며, 남녀의 성

별은 혼백(魂魄)의 세계에만 있다.

관세음보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라는 질문을 곧 잘 받게 되는데, 관세음보살 즉 신불의 화신(化身)은 남녀를 종합한 현현(顯現)이며 음양합체(陰陽合体)의 절체신(絶体身)이다.

문(6) : 인간의 능력의 차이(差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 : 금생(今生)의 능력은 모두 과거세의 경험과 노력이 그 토대로 되어 있다. 과거세에서 가령, 수학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은 금생에서도 수학에 빼어나며, 음악을 잘 배운 사람은 금생에서도 음악에 뛰어나다. 천재(天才)라 불리우는 사람은 모두 과거세에서 그 길에 뛰어났던 사람이다. 6 세로 피아노의 천재를 발휘한다거나, 8 세로 전문가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리는 따위는 모두 과거세에서 열심히 그 방면의 일을 익혔던 사람들이다.

관상가나 수상가 등이 「이 아이는 무엇 무엇이 적합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상(人相)이나 수상(手相)에 그 아이의 과거세의 경험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영각(靈覺)으로 직각적(直覺的)으로 가르쳐 주고 지도한다.

금생에는 과거세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바야흐로 사기(死期)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연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가특하며, 또 내생(來生)을 위해서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방면의 성공도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과거세의 과거세부터의 노력, 연구, 경험 등이 토대가 되어 이룩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인간세계를 보는 경우, 이처럼 불평등, 불균형, 불공평한 세계는 없으며, 허무주의자(虛無主義者), 찰나향락주의자(刹那享樂主義者), 계급투쟁주의자(階級鬭爭主義者) 등이 나오게 되는 것은 결코 무리는 아니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불의 뜻이나 업(業)의 법칙에서 볼때, 실로 불행한 사람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간은 일시, 일분, 일초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기를 심화하고 높여 가는 경험과 노력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는 자기를 구제하는 길은 없는데도 청년들이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알고고도 하지 않고, 다만 부질없이 주의운운(主義云云)하면서 업인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 국가, 인류를 참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우선 자기를 높여 가는 공부에 전심진력(專心盡力)하고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때부터 활동하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다. 인생은 유구(悠久)하다.

문(7) : 경(經)을 읽어 공양(供養)하면 참으로 영(靈)을 위안(慰安)하고, 정화(淨化)할 수 있습니까?

답 : 독경(讀經)은 영혼을 위안할 수 있으며 또 정화도 된다. 그러나 경문(經文)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는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는 높은 빛이 깃들어 있긴 하지만, 경을 독송(讀誦)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경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전연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

경이 가진 높은 빛은 물론 있는 것이므로 그 메아리는 업인연을 초월하여 유계(幽界)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독송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비도 없고 신(信)도 없이 다만 습관적으로 읽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 경이 가진 높은 파동(波動)과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이 합치(合致)되지 않아 그 메아리는 유계의 영혼에 닿지 아니 하므로 효과가 없게 된다.

경을 읽을 때는 역시 그 경문에다 마음을 집중하

여 올리는 것이 제일이며,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공(空)에 가까워지므로 그 공(空)에 경의 빛(光)이 충만하게 되어 그 사람과 인연 있는 영혼에 메아리쳐서 그 영혼의 악인연을 정화하게 된다.

승려(僧侶)에게 부탁해서 독경케 하는 경우는 그 승려의 인격의 높이, 깨달음의 정도와 시자(施者)의 애념(愛念)의 깊이에 따라 그 경의 공덕(功德)의 다과(多寡)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8) : 생장의 집(生長之家<일본의 유명한 종교법인>)에서는 신(神)은 무한(無限)의 공급(供給)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나 극락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현상계(現象界)에서도 그 실현이 가능 하다면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

답 : 진정, 하느님은 무한의 공급 그 자체이다. 첫째,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방사(放射)된 최초의 빛이며, 그 생명이야말로 하느님의 무한공급의 실현자인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진지하게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살려 나가는 데 필요한 물질, 기타의 공급이 끊임 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일심전력(一心專力)한다는 것을 말함이며, 게으름을 피우면서

무한공급을 받으려는 마음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전력을 다하여야만 하느님의 마음과 어울리게 되며, 따라서 무한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처신해야 한다. 주어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인연에 따라 나타난 환경인 것이며,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전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그 업인연을 초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마음의 자세야말로 무한공급을 얻을 수 있는 요결(要訣)이 되는 것이다. 무한공급이란 집에 산적(山積)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질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혜, 사람, 물질 입장……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9) : 흔히, 여우라거나 너구리 같은 것이 붙었다(憑依)고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 : 여우, 너구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동물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유계에 살고 있는 감정령(感情靈), 동물령(動物靈)이라고 하는 따위 영혼을 말한다.

의학에서 말하는 정신병자나 행자(行者)의 일부에

는 그러한 감정령에 빙의(憑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신(迷信)이나 잡신(雜神)을 숭상하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이 감정령의 작용이 크다.

이 감정령은 영(靈)이라고 보통 부르고들 있지만, 실은 혼(魂<인연의 파동의 집합체>), 다시 말해서 미념(迷念)의 파동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미념의 하나의 현현(顯現)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언제나 흥미본위, 감정위주로 행동하고 있어서, 인간처럼 자비(神佛)를 내부에 지니고 있는 영혼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체와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에 있어 가장 소중한 마음, 즉 자비(慈悲)와 지성(知性)을 제외한, 기타의 염(念)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인간 가운데도 자애(慈愛)도 지성도 없고, 다만 이해(利害)나 감정만으로 적이 되기도 하고, 자기편이 되기도 하며, 또 무턱대고 칭찬하는가 하면, 헐뜯거나 하는 도배(徒輩)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령에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러한 염(念)을 가진 사람이 유계로 가면, 이번에는 동물령과 서로 어울려서, 미신이나 저급령(低級靈)의 행자(行者)

에게 붙어서(憑依), 육체계의 인간을 재미 본위로 미혹시키곤 한다. 형상의 세계는 전부 상념이 적어져 나타나는 세계이므로, 여우와 같은 상념은 여우와 같은 형상으로, 뱀과 같은 상념은 뱀과 같은 형상으로 영안(靈眼)에 보이곤 하는 것이다. (심령가<心靈家>나 연구의 일부는 여우, 너구리 등을 자연령<自然靈>이라 부르고 있지만, 나는 다만 감정령이라 불러 둔다. 왜냐 하면, 나의 설명은 자연령이라 부를만큼 광범위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감정령의 빙의(憑依)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주장하는 수호령, 수호신에 대한 감사와 자비와 진실 어린 행동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부질없이 신기함을 좋아한다거나 영력(靈力)을 바라는 태도는 엄히 경계해야 한다.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행이 떠나지 않거나, 신앙하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가정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거나, 신앙의 방법이나 일상행동이 이상스럽고 과이하게 흐르고 있다거나 하는 따위는 그 신앙의 어딘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빙의령(憑依靈)의 작용이 적지 않다.

흥미본위나 이익본위(利益本位)의 신앙은 실로 위

힘하다.

사도(邪道)에 발을 들여 놓고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의 본심을 살펴서 신불과 참으로 일체가 될 때까지 지도해 주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수호령, 수호신에게 기념(祈念)해야 할 것이다. 수호령은 자기와 완전히 하나의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마음속으로 항상 수호령, 수호신을 염(念)하고 있노라면, 조만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사도(邪道)에서 건져 준다.

그러한 청순한 마음으로 입신(入信)한 교단(敎團)이라면, 설령 그 입회의 동기가 샅된 이익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참된 정화(淨化)에까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고야 말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빙의령의 걱정도 없어질 것임은 물론이다.

문(10) : 신(하느님)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각국, 각인종으로 인간을 갈라 놓았을까요 ?

답 : 신(하느님)의 자기현현(自己顯現)의 과정(過程)에서 각국, 각인종으로 갈라져서 각기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신(하느님)이 각직령(各直靈)으로 되고 각분령(各分靈)으로 갈라져서 이 인류세계를 창조한 것과 똑같은 경위인 것이다. (본문 참조)

각국, 각인류, 민족은 저마다의 개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극도로 발휘하면서 서로의 힘을 교류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 받고, 또 다(多)이면서 하나로 조화하여 가면서 신(하느님)의 뜻을 인류세계에 현현(顯現)하여 가는 사명을 지닌 것이 현계(現界)의 인간이다. 그러나 현계의 인간만으로는 그 작업은 매우 곤란하므로, 신(하느님)이 수호의 신령을 각국, 각민족의 배후에 대기시켜 활동케 하는 한편, 신계(神界), 영계(靈界)에서도 신(하느님)의 의지의 달성 즉 귀일(歸一), 대조화의 인류세계 창조를 위한 一大응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육체인간의 힘만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려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며, 신계, 영계의 일대응원이 없는 한, 인류는 그 업생의 흐름에 여지 없이 떠밀려 나가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인류세계는 육체인간이 그 주체(主體)이며 신인(神人), 영인(靈人)은 항상 배후의 응원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 아(我), 나라의 아(我), 민족이나 인종(人種)의 아(我)에서 나온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신(하느님)의 의지달성의 길을 개척할 수 없다. 개인도, 나라도, 그 모두가 모든 개인을 위해, 모든 국가를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 강하고 깊은, 그리고 높은 자비심에서 재출발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세계국가도, 세계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신(하느님)은 다수의 신인, 영인에 명(命)하여 육체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비일원으로 하기 위하여 현재 커다란 구세활동(救世活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의 지도자는 먼저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

소박청순(素朴淸純)한 마음으로 신불(神佛)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지도자는 조만간 틀림없이 그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세계평화의 천국은 이 지상세계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11) : 날 때부터 신불사(神佛事)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답 : 그것은 모두 과거세의 인연에 의한 것으로 절(寺)이나 교회의 출입이 잦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거나 어느 종교단체에 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결하다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다.

종교단체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불사(神佛事)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훌륭한 사람이란 자기의 양심에 충실하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입교(入敎)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입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이 신불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신불이란 자비이며 양심이다. 자비심이 부족하고 양심을 배반한 채, 신불을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비스럽고 양심에 충실하고, 게다가 신불을 참으로 인식하고, 신불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입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며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문(12) : 인간에는 육체 외에 유체(幽體)가 있다고 하는데, 유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답 : 유체란, 인간의 상념과 행위의 기록체라고도 할 수 있는 체로서 육체에 중복해서 육체와 같은 형태를 가진 가스체이다. 이 가스체의 크기나 색깔에 의해 그 사람의 영성(靈性)의 높고 낮음과, 성격, 운명 등을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곧잘 혼(魂)을 보았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유체(염체를 포함)를 보았던 것이며, 혼(魂)이란 유체에 분령이 타고 있는 상태, 말하자면 분령이 유체에 있는 상

태를 말한다.

유체는 사람에 따라 각기 그 크기와 색깔(상념, 행위의 집적이 색으로 된다)이 다르다. 유체가 큰 사람이 주로 종교를 열심히 하거나 빈번히 절이나 교회, 교당의 출입을 한다. 또 타인의 상념이나 유계로부터 오는 염파(念波)에 감응하기 쉬운 사람은 대개 유체가 큰 사람인데, 그 유체에 축적되어 있는 상념이 더럽혀진 사람은 저급한 상념에 켜워지기(憑依) 쉬우며, 유체가 정화되어 있는 사람은 고급령의 감응을 받을 수가 있다.

유체의 색깔은 가벼운 색일수록 맑게 정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금색(金色)에 빛나고 있을 때는 이미 유체는 없고 신불의 빛(光) 자체가 빛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무거운 색깔일수록 오염(汚染)이 많음을 가리킨다. 보라(紫)나 청계통(靑系統)의 색깔을 지닌 유체 등은 고급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분위기가 청순(淸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대개 고결한 인격자라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다.

아무튼, 항상 착한 상념을 갖고 애타행(愛他行)을 하기 위해 노력해 가면, 마침내는 그다지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소박한 형태로 언제나

애행(愛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생활만이 그 전부가 아니며, 유계의 생활, 영계의 생활이 육체생활의 배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육체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죽기 이전에 자기의 상념을 정화(淨化)하고 인생을 개선하여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문(13) : 예수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수교에서는 일체만물을 신(神)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모두 무명(無明)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며, 12인연과 그 이면(裏面)에 일체만물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설법하고 있다.

무명(無明), 12인연설만으로는 참다운 불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일체만물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깨달은 채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석존의 위대함은 이해하지 못한다.

불교의 불성과 마찬가지로 예수교에서도 내재(內在)하는 신(神)을 설파하며,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스스로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불교의 인연설과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

예수교는 형상 있는 세계를 신이 창조했다고 설교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업(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생각하면 예수교 쪽이 단순하고 알기 쉬워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신에게 순박하게 따라가기 쉽다. 게다가 예수라는 신의 매개자(媒介者)가 있으므로, 예수를 통하여 신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사(赦)해 받아서 천국(天國)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불교의 정토종(淨土宗) 계통의 일심연불(一心念佛), 다시 말해서 서방 극락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오로지 생각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

전자(前者)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후자(後者)는 아미타불이라는 차이뿐이다.

나(我)라는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라 하는 예수교의 생각만으로는 인간은 신의 종속물이며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부자유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성서는 그러한 창조주를 설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은 내 안에 계시다 하여 내재(內在)하는 신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신은 사랑이므로 애행(愛行)하는 자, 진리에 순박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자기의 업인연(業因緣)이

자기의 운명을 만들며, 이 업인연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공(空; 마음을 텅 비움)으로 하여 내부의 불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법하는 것과 서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불교에서는 신이라 하는 것을 부처세계에 속하는 영계(靈界)에 있어서 영(靈)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교에서도 일단은 신에 의해 창조된 육체 인간을 피조물의 입장에 두었지만, 그러나 피조된 육체 인간 안에는 엄연히 창조주이신 신이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내부에 계신 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 받지 못한다. 인간이 신을 잊어버리고, 신으로부터 떠난 인간적인 지혜나 힘만으로 살아 간다면 더욱 더 죄(업)만 거듭하게 된다.

그러기에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혔던 것이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사(赦)해 받고 애행(愛行)을 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이다.

창조주설도 업생설도 다 같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마찬가지로 각자가 내키는 쪽으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문(14) : 나는 힘써 애행(愛行)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도, 병과 불행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 : 선행(善行)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일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걱정해야 할 사태는 아니며, 그 사람 자신과 일가일족(一家一族)이 진보하여 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과거세부터 축적되어 있는, 그 사람 또는 선조의 악인연이 그 사람의 때가 되어서 표면에 뚜렷이 나타나면서 소멸되어 가는 모습인 까닭이다. 인간에게는 육체세계 이외에도 유계, 영계의 세계가 있으므로, 괴로움이 제일 가벼운 육체계에 있는 동안에 과거세부터 축적된 업인연을 가급적 많이 소멸시켜 두는 편이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조상 또는 자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선행을 하면 할수록 불행한 사건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행이 아니라, 잠재하고 있었던 불행이 재빨리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불행이 장기간 잠재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현재당하고 있는 불행의 몇 곱절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이 현상에 의해 자기와 조상의 업인연이 완전

히 소멸되어 간다」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신불은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결코 불행을 줄 리가 없으며, 절대로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의 상념과 행위를 잘 내성(內省)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상념, 행위에 틀림이 없다고 믿어지면, 「이것은 업이 없어져 가는 현상이다, 이제부터 반드시 좋아진다」고 단호히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용기야말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주위를 구원하는 기원(祈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생(今生)에서 그다지 불행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유계에서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과거세에 선행을 많이 쌓아 놓은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다지 불행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별로 재능도 없는 듯한 사람이 의외로 부자가 되어 명실 공히 행복한 생애를 마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과거세의 선인연(善因緣)의 결과이므로 유계에 가서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세의 인간은 “과거세의 인연+현재의 상념, 행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며, 또 그것이 미래의 운명과도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참모습은 영(靈)으로서, 업인연에 붙들리는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자유자재하다」고 관(觀)하고,

어떠한 업인연의 움직임에도 초연할 수 있는 심경으로만 되어 있다면, 현상(現象)의 불행은 홀연히 꺼져 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업인연의 윤회를 초월한 신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문(15) : 정신병, 소아마비, 간질 등등, 난치 또는 불치로 알려져 있는 질병은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답 : 그러한 질병은 거의 병념(憑念)의 작용이다. 즉 병의령(憑依靈)에 의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육체가 완전한 형태로 활동(질병 없고 악행위가 없는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신불계(神佛界)로부터의 생명의 빛이 도중장애 없이 육체계에 투사(投射)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말하는 질병, 불행, 악행위 등이 나타나는 것은 신불로부터 오는 빛이 유계에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악상념(악인연)의 집적(集積) 때문에 더럽혀져서, 그 불결한 파동이 그 악상념의 형태에 따라 육체의 질병, 불행, 악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물음과 같은 병의 경우는 그 사람의 악상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선조나 인연이 있는 영혼 중, 아직도 미계(迷界<혼미한 영혼

이 있는 곳)에 있는 영혼의 미념(迷念)의 파동이 신
불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그 인간의 육체를 부자
유스러운 상태로 만들고 만다.

생명의 빛이 가령 백촉광(百燭光)이 되어야만 완
전히 살아 갈 수 있는데도 10촉광도 안 되는 광파(光
波)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면, 육체가 부자유스럽게 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차단하고 있는 오염(汚染)된
염파(念波)를 정화(淨化)하거나 빛나가게 하는 두 가
지 길 밖에 도리가 없다. 과학으로 그러한 방법을 쓰
면 치료될 것이지만, 현대는 아직도 거기까지 의술이
진보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기에 과학자 아닌 종
교가가 그 흥미한 영혼에게 기념(祈念)에 의해 강력한
광파를 방사하여 그 영혼의 흥미를 깨이게 하는 방법
을 채용하고 있다.

정신병의 경우 등은 의사가 전기요법을 써서 그
쇼크에 의해 뇌신경의 조정을 꺾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정신파장(精神波長)의 수정인 것
이다. 그러나 병의(憑依)하고 있는 상념의 파동(흥미된
영혼)에는 갖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아무에게나 일률
적인 전기요법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
다. 그보다도 먼저,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상태의 부조화(不調和)에 끌려, 외부(幽界)로부터의 혼미한 영혼, 말하자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상념과 동일한 부조화의 상념이 감응하여 온 것에 기인(基因)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 원인을 알아서, 우선 그 사람의 억압된 상념을 풀어 주는 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육체의 장애 및 육체기능의 일부로서의 정신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태도로만 나간다면, 앞으로도 병자의 수는 총체적으로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학이 지금까지의 방법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질병이란 육체외(肉体外)의 세계의 부조화에 기인(起因)할 수도 있다는 면에 대한 연구도 하여 나감으로써 육체, 정신, 심령(心靈)의 삼의학의 완성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간의 의혹적(疑惑的)인 미신치료를 일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질병치료는 의사의 전문이다, 라고 국가가 말하고 있는 이상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연구를 의학계에 권장해야 할 의무같은 것도 느껴진다.

문(16) : 성명(姓名)을 바꿈으로써 운명이 달라지거나 방위(方位)를 바꿈으로써 행운이 오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답 : 성명(姓名)을 단지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호전되지는 않는다.

성(姓)은 조상의 인연을 나타내며 이름(名)은 그 사람의 과거세의 인연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명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 맞힐 수 있다.

그러나 성명이 지니고 있는 파동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모(某) 아무개라고 지어진 성명에는 그 성명이 지어진 이전, 즉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운명의 소인(素因)이 있으므로 그 소인이 모(某)라는 성(姓)을 가진 집에 아무개라는 이름이 붙여 지도록 태어나는 것이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과거세로부터의 인연, 다시 말하면 과거세에서 어떠한 상념을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 온 인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세의 그 사람의 인연, 다시 말해서 행위의 습관, 성격의 경향 등을 원소(元素)로 하여 금생의 운명을 추찰(推察)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명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리(推理)일 뿐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명학은 성명과 출생 연월시를 곁들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도, 다만 성명만으로 인간의 운명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것이다.

그렇지만 출생연월시까지 곁들여서 그 방면의 달인(達人)이 보는 경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세의 인연의 나타남에 따라 추리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과거세로부터의 악인연(惡因緣)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다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도저히 호전시킬 수는 없다.

이 이름을 가지면 ○년○월에 중병을 앓게 된다는가, 결혼운이 나빠서 배우자와 일찍 사별한다든가, 심지어는 단명(短命)하다든가 하는 그 사람의 어두운 운명을 일단 찢든 다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만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 속에 악인연(어두운 운명)을 인식시켜 버려, 그 사람의 운명을 과거세의 인연에 얹어매어 두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심어 주게 되는 것으로서 참다운 구원은 아니다. 하물며, 여간한 달인(達人)이 아닌 한, 성명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미래를 틀림없이 예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성명학은 출산아(出生兒)의 이름을 짓는 정도로 그쳐 두는 것이 좋다.

나의 성명 五井昌久는 어떤 성명학으로 보더라도 총수 19나 20의 공허수(空虛數)로서 매우 나쁜 운명을 갖고 있다. 또 井昌을 합한 주운수(主運數)가 12로서 이것 또한 흉하며 게다가 음양의 배합마저 좋지 않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면 청년기까지는 매우 혜택 받은 삶이지만 후반기 이후에는 무엇을 하여도 중도 좌절하여 비운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형제의 인연도 매우 나쁘며, 항상 고독하다는 덤까지 붙어 있다. 그런데도 나의 운명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청년기까지는 비록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양친이 존재하며 형제·자매 5명도 편안히 살고 있다. 게다가 나의 운명도 청년기부터 급상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고독과는 정반대인, 오히려 유복한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명학이 잘못된 것이거나 내가 성명학적 인연을 이미 초월해 버렸거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설사 나쁜 성명이라도 마음만 바꾼다면 그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아름다운 인간은 자기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는 가르침이나 암시(暗示)에서 벗어나 오로지 밝고 희망 있는 생활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

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너의 운명은 네 안에 계시는 신불에게 일임하라”고 말하고 싶다. 인사(人事)를 다했을 때 신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계발해 주는 것이므로, 부질 없이 공포에 떠다거나 자기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떳떳하게 받겠노라 하는 용기야말로 그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힘인 것이다.

다음은 방위(方位)에 관해서인데, 이 역시 갖가지 연구 결과로 권위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방위를 바꾸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법칙에만 집착하여 인간의 자유가 구속되고 행동에 있어 겁장이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일일이 방위를 조사하고 그 일을 해냈던가 하면 그렇지 않다. 자기가 자신의 신념 아래 전력을 다하여 매진할 때 저절로 자기의 운명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위로 신불(수호신·수호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매일 수호신·수호령의 가호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해 가노라면 저절로 자기

의 운명에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불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신념을 자기의 마음에 심어 가도록 하는 편이 성명학이나 방위학보다도 우선되는 구원의 길이다.

문(17) : 우리들은 평상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 : 인간은 자기 혼자만이 생활하고 있다거나 자기 한집만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확실히 알고, 자기나 자기집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의 근본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자기 한집만의 행복을 위한다는 사고방식은 종종 이웃과의 충돌을 면치 못하고, 대사회성(對社會性)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습관화해야 한다. 전부를 살린다고 하는 정신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제일 소중한 마음가짐인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도 모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간다면 어려운 이론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틀림 없이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잘 되어 갈 것이다. 상대방도, 자

기도 살리는 법, 이것이 바로 사랑(慈悲)이다.

문(18) :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색정을 일으킨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청년 이상의 사람 중에 간음을 하지 않는 남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 나는 청년 시절에 그러한 일로 매우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마음 속에 생각만 해도 안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더우기 청순한 마음의 소유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나는 색정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가혹하지는 않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심약한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정도의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남녀관계가 극히 문란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시대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항상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상념은 그 일어나는 상념만큼 과거의 상념이 사라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음에 색정이 일어난 경우,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더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 마음을 전환시키는 편이 훨씬 소멸시키기 쉽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 마음을 전환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경우에는 색정이 일어나는대로 내 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숫아 오르는 상념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은 도리어 소멸시키는 데 어렵게 만들 뿐이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므로 나올 대로 나와 버리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다. 참는다고 해서 그쳐질 정도의 약한 용출(湧出)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남성은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상념의 힘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남성으로서 불가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힘은 육체인간의 선악을 초월한 힘인 것이다.

이 힘이 여성을 보면 일어날 따름인데도 악이라고 질책을 당한다면 견디어 내기 힘들다. 또한 그 상념을 소멸시키는 때의 마음가짐과 방법에 따라 그것이 미래의 악인(惡因)이 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상념행위는 모두 과거의 인연이 사라져 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행위를 근신(謹愼)만 하고 선(善)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사람은 유익한 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문(19) : 선생님은 이름만 들어도, 그 성격과 행동을 확실히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더우기 그 사람의 생사(生死)까지도 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그것은 매우 설명하기 힘든 문제인데,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나로서는 그 사람의 성명 같은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묻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명을 나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 때 이미 나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계는 모두 빛(光)의 파동, 상념의 파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람마다 저마다의 상념의 파동에 싸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예(例)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세부터 발출(發出)하고 있는 상념의 파동 속에서 그 상념의 인(因) 또는 연(緣)에 닿는 사람 또는 사물과 교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특유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독특한 세계를 저마다 가지면서 인연상합(因緣相

슴)하여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상념의 파동의 세계를 유계(幽界)라 하는데, 그 유계——개인의 경우는 그 유체에 그려져 있는 상념의 파동, 행동의 파동——를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보이게 되는가 하면, 나는 나라고 하는 상념을 그 순간 무(無)로 할 수가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은 공(空)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공 속에 가령 A라는 사람의 유체에 그려져 있는 성격이랄지 운명이 부각(浮刻)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된다. 왜냐 하면, 공(空)이란 우주대(宇宙大)로 확대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그 우주중(宇宙中)의 소우주(小宇宙)인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 나 즉 우주대(宇宙大)로 확대된 마음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A라는 사람의 일이 나에게는 전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경우, A라고 하는 사람과, 그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어 보는 사람이 서로가 일면식(一面識)도 없는 사이일지라도 내가 보는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그 마찬가지라고 하는 원리는 묻는 사람에 있어, A가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육체계에 있어서의 일이며,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A의 일을 물어 볼 정도의 상태라면, 사실은 과거세에서 원

가 인연상(因緣上)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과거세부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입끝에도 그 이름이 나올 리가 없다. 나는 그 조그마한 일을 매개(媒介)로 해서 그 A를 찾을 수 있다.

나는 A에 관한 일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 전부를 묻는 사람에게 말해 주지 않으며, 다만 묻는 사람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가르쳐 준다.

혼담(婚談)의 경우 등은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성격과의 상성(相性<보통 말하는 궁합>)과 그 남녀의 과거세의 인연의 선악(善惡)을 세밀히 관찰하여 그 양부(良否)를 결정한다. 과거세에서 서로 적대시했었던 남녀가 서로 그 원망을 주고 받은, 그러한 상념을 가지고 이 현세에 출생하게 된 경우, 공교롭게 현세에서 양자(兩者)가 또 표면적인 현재의식으로는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반드시 과거세의 상념이 잠재의식에서부터 자연전회(自然轉回)의 업(業)의 범칙을 타고 표면(현재의식)에 차츰 나타나기 시작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커다란 비극으로까지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결혼상담을 받으면,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처럼 본인이나 주

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도, 단호히 그 결혼에 반대해 버린다. 그래서 일시(一時)는 그 남녀로부터 원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결혼후의 분쟁의 중재(仲裁)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자녀가 특별히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이해하고 존경하고 조화에 힘쓰라고 권유하고 지도하여도 결국은 이 현세에서는 두 사람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깊은 업인으로 맺어진 사이인 경우가 많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종교가들이 다만 무턱대고 조화운운하면서 서로가 배례(拜禮)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일러 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악인연은 얹히고 설켜서 조화되기는 커녕, 마침내는 살상사건(殺傷事件)마저 일으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 수도 있다. 일단 결혼했다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러한 최악의 경우도 있으므로, 인간의 구원이 매우 좁혀져 버리고 말 것이다.

참다운 조화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을 배치(配置)하는 것이며, 맞는 여성을 짝 지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다수 나오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항상, 그리고 오로지 수호령, 수호신께 감사하면서 그 가호(加護)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아뭏든, 밝은 상념을 언제나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

나는 자비심이 많은 선량한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순간 상대방의 자비심이 나에게 영사(映写)되어 와서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훌륭한 근사한 예술가의 이름을 들은 경우에도 물론 그러하다. 일전에도 시게티 이(주: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 때도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분이었다. 멋 있고도 훌륭한 음악이 그 사진을 통해서 들려 왔던(觀해진)것이다. 자비심과 좋은 예술은 똑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인간의 육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념을 보고(觀)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나의 본주지(本住地)는 이 육체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생사(生死)를 분별하는 방법은 분령으로부터 오는 광파(光波)가 육체계에 흘러와 있는가, 흘러와 있지 않는가에 의해 알 수 있다. 이미 영(靈)의 광파가 육체계에의 유입(流入)을 멎고 있더라도, 유체가 아직 육체를 떠나지 않고, 육체에 보내질 광파가 그 육체에 축전지(蓄電池) 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사기

(死期)는 가까우면서도 아직 육체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전된 광파(生命)가 꺼져 버리면 그 때, 육체는 넘어지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영계(유계도 포함), 육체계의 관계를 실제로 잘 나타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갖 가지 연출을 하고 있더라도 스위치를 넣고서 수상기(受像機)의 브라운관에 영사(映寫)해 내지 아니하면 브라운관에 아무 화면도 나올 수 없지만, 일단 스위치가 들어가서 전류(電流<광파 유파>)가 흐르게 되면 방송국에서 연출하는 극(劇)의 인물이 그 파동을 타고 브라운관에 나타나서 활약하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바로 텔레비전의 수상기에 해당하며, 영계는 텔레비전의 방송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수상기까지의 공간에 유계가 있어, 육체의 운명으로 나타나는 업인, 업연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육체(수상기)의 측에서 말한다면, 육체(수상기)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며, 인간은 없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방송국(영계)에서는 여전히 연극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파동은 메아리 치고 있으므로, 인간은 수상기(육체)에 비치지 않을 뿐,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인간의 활약을, 나는 영계(방송국의 무대)에서도 그 도중의 유계에서도 또 육체(수상기)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문(20) : 실물(失物), 도난(盜難) 등을 당한 경우, 그것은 몇 살쯤 되는, 어떠한 어떠한 얼굴의 사람이 훔쳐 갔다고 말하는 행자(行者)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정확한 것입니까?

답 : 그 행자의 말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한 영능(靈能)으로 범인이나 죄인을 지적하는 따위 그 자체가 신불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능은 신불로부터 직전(直伝)되어 오는 것이 아니면, 진짜 영능이라 할 수 없다. 한 걸음 양보해서, 그것이 신불령직접(神佛靈直接)이 아니고, 더 낮은 영계로부터의 지도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자 또는 청문자(聽聞者)의 영성(靈性)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단순히 범인을 지적해서 죄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남을 재책(裁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간이나 하나의 집을 위해 하는 것은 영능자의 본래성에 벗어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능자는 본래 종교가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무엇을 맞추어 내는 점복자(占卜者)의 구실을 한다면, 더우기 남을 손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불의 마음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되어 버리고 만다. 이 의미를 우선 알아 주기를 바라면서 물음에 답하기로 한다.

그 범인은 몇살 쯤의 이러 이러한 얼굴 모양이라고 행자가 말하는 경우, 참으로 맞힌 경우도 있는가 하면, 혹은 묻는 사람의 잠재의식을 보고 묻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상쩍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지적하는 수가 많다. 그 경우, 그 행자(영능자)는 그러한 사연에 연유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순전히 신고(申告)에 의해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범인을 지적하는 따위 행자(行者)는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서, 신시(神示)와 유계의 영혼의 염의 분별조차도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신시(神示)라고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히 도난을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따위 행자들에게 물어 봐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면서, 뭔가 마음에 잘못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

하여 주십시오, 라고 신불(수호령, 수호신)께 기념(祈念)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도난품이 나와 주는 편이 자기에게 유리(有利)한 경우에는 나오는 것이며, 안 나오는 편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잃어 버린 그 자체보다도 우왕 좌왕(右往左往)하면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편이 더욱 큰 손실인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물음을 받았을 때에는, 나는 우선 조용히 기념(祈念)을 해 주며, 돌아올 것이라면 돌아온다고 말하고, 돌아오지 못할 물건이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해 줄 뿐, 범인에 관하여는 한 마디도 하여 주지 않는다. 도난 당했다고 하는 그 인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뭔가의 인연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소동을 피우게 된 것을 마음 깊이 사과하면서 인연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염(念)하면, 대개 도난품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재화(災禍)를 연(緣)으로 해서 복(福)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상 수련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21) : 사망한 부모형제나 지인(知人)의 영이 영매자(靈媒者)에게 씌워져서(憑依) 몸짓(靈動)을 하거나 말

을 하는 수가 있을까요?

답: 물론 있다.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호출 받은 영혼이 육체계에 전혀 흥미가 없을 때에는 영혼이 걸려 오지 않는 때도 있으며, 또 걸려 온 것처럼 보여 주면서도 사실은 가짜인 경우도 있다. 왜, 가짜가 위장(偽裝)하여 오는가 하면 그 영매자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영매자를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지배령(支配靈)이 상대방(의 퇴자)의 심중을 알아 차리고서, B 라면 B 라고 하는 망인(亡人)의 생전의 버릇을 흉내 내어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진짜, 가짜는 여하튼간에 교령(交靈)의 실재를 한 두 번쯤은 보아 두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공부가 되리라 믿는다.

너무나도 육체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에, 육체 이외의 세계가 있어서 사자(死者)가 살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생활을 긴장케 하고, 나아가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령연구는 의의(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알았다면 언제까지나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 영능자를 본 뒤, 자기도

그러한 영능을 갖고 싶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비와 진심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비와 진심의 길을 나아가면서도, 만약 고난을 당한다거나 그 길이 그릇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경우에도 신불은 결코 그 사람들을 방치해 두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탁 트일 날이 찾아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 가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이다.

문(22) : 자살(自殺)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수호령, 수호신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다면, 왜 자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지 않을까요?

답 : 어떠한 사람에게도 수호의 신령이 지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그 사람의 과거세부터의 업층(業層)이 지나치게 두터우면, 아무리 수호령, 수호신이 광파를 보내어 그 업상념파(業想念波)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주의시켜 주어도 감응하지 못한 채, 업상념대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곤 한다.

자살은 대개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자신(自信)을 잃고

세상을 저주(呪呪)하면서 죽어 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것은 모두 자기 본위의 삶을 하여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며, 이 경우는 대개 무기력(無氣力), 무능력(無能力), 무책임(無責任) 등으로 평가된다.

둘째의 경우는 가령, 전쟁에서 패전(敗戰)한 경우라든가,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책임감, 죄책감, 또는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그 책임을 짊어지고 패전한 장병(將兵) 또는 당사자가 자살하는 경우인데, 이는 자기 본위의 자살이 아니라, 타(他)에 대한 미안감, 책임감 때문에 감행한 것이므로 셋째의 경우의 자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공익(公益)을 위한 자살자도 이에 포함한다.

셋째의 경우는 선조나 부모에게 와 있는 원한(怨恨)의 상념의 파동을 받아, 자기 자신은 죽고 싶지도 아무렇지도 않는데도 갑자기 자살해 버리는 경우인데, 이것은 하나의 희생사(犧牲死)라고도 볼 수 있다.

자살은 이상 세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자살은 죄악이다 라면서, 자살자는 모두 지옥에 빠져서 오랜 동안 지독한 고생을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중

교가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의 경우는 자기의 무능 무기력 무책임 때문에 더 힘쓰면서 살아 가야 할 자기의 육체생명을 계속시키지 못하고 타계(他界)로 도망쳐 간 것이므로, 자연(自然<神佛>)의 법칙에 배반한 만큼의 마이너스를, 타계(他界)에서의 고행(苦行)에 의해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랜 동안의 지옥의 고통을 받는 꼴로 되는 셈이다.

생명에는 자연히 갖추어진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으로서 그 법칙을 배반하면, 배반한 만큼의 마이너스면(面)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보상(報償)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의 법칙에 배반된 삶 또는 죽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이 반드시 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과보(果報)를 받고 고통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비로소 그 고통이 생명의 법칙, 다시 말해서 신불(神佛)의 길에 어긋난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갚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된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 참된 길에 들어선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그 사람의 진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소멸되

어 가는 모습으로 되어서, 진실로 신불의 소생의 본심이 개현(開顯)되어 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 종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될 수 있는 대로 덜어 주면서 손쉽게 본심 개발의 길로 인도하려는 염원으로써 종교의 길을 떠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통절히 그러한 구세(救世)의 일을 생각한 끝에, 오늘날의 세계 평화의 기원의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두번째의 자살의 경우는 첫번째의 자살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영계에서 받게 된다. 전쟁의 패전책임자로서 자살한 사람, 공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 등은 자결자(自決者)이면서도 신불계에 있게 되며, 순수한 순국자(殉國者)로 제신불(諸神佛)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번째의 경우는 첫번째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호령이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선조나 부모의 인연소멸의 희생자로 생각하고 자살을 말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더라도 영성개발(靈性開發)의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수호령이 인정하고 그러한 인연소멸의 희생자로 하여, 본심개발의 지름길인 영계로 옮겨 주는

것이다.

영계의 작용에는 육체인간들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갖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신불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수호의 신령에 대한 감사행(感謝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세계평화의 기원에 의한 일상생활이다.

그러므로 세계평화의 기원에 주축(主軸)을 두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일은 모두 최선의 일이라고 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평화의 기원과 같은 대승적(大乘的)인 기념(祈念) 속에서 절대로 나쁜 결과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되어 가는 모습(現象)과 세계평화의 기념과 수호의 신령에 대한 감사행으로 나날을 보내게 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불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해 버리고야 만다.

문(23) : 정화(淨化) 또는 기념(祈念)을 해 받으면, 어찌하여 운명이나 질병이 좋아집니까?

답 :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체 외에도 육체와 이중복체(二重複體)처럼 되어 있는 유체, 영체라는 것이 있으며, 영체(靈體

〈神體〉)는 영계, 신계(神界)에 이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광명찬연(光明燦然)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진성(眞性)이다.

이 영성(靈性)이 그냥 그대로 육체신으로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바로 지상천국이지만, 이 영성이 육체계에서 본래성(本來性)대로 직용하기에는, 영체와 육체신과의 파동(波動)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냥 그대로 이어질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영체와 육체의 중간에 유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 그것이 영육(靈肉)을 잇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인간은 대별(大別)해서 신계, 영계, 유계, 육체계의 4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단순히 육체계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가도 이 지상세계의 평화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계(神界)에 본주지(本住地)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신불(神佛<大生命>) 자체 속에 분주(分住)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불의 작용으로 지구계(地球界), 물질계(物質界)를 창조하여 어류(魚類), 조수(鳥獸) 등이 정주(定住)한 후, 인간은 신불의 분령(分靈)의 작용으로 그 정묘(精妙)한 광명체(光明體)를 약간 조잡화(粗雜化)

하여 유체(幽體)를 만들고 다음에 육체를 만들어서 영체가 유체를 탈것(乘物)으로 삼고 육체계에 하강(下降)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계에 있으면서도 유계와 영계에도 아울러 살게 되었으며, 또 진령(真靈)으로서는 신계(神界)에서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정묘한 신령(神靈)의 체(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대손손(代代孫孫) 육체계의 조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동안에, 마침내는 자기들이 본래는 정묘한 신령의 체(體)임을 잊어버리고선, 육체계, 지구계의 부자유스러운 움직임만을 자기의 본래의 모습인 양, 잘못 생각해 버린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인간의 모습이며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러한 모습(現象)에 의혹을 느껴 진지하게 인간의 내부세계를 탐구(探求)하여, 「인간의 본체는 신불(神佛)이며, 본래는 자유자재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 육체인간의 상념을 공(空), 즉 텅 빈 것으로 하여, 육체인간 세계의 모든 현상을 무(無)라고 실관(實觀)한다면, 그때 진실인간(眞實人間)의 참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상에 도달했던 사람이 과거의 제불(諸佛)제성자(諸聖者)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체험으로서도 자유자재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정화(淨化)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제성자(諸聖者)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공(空)을 관(觀)하고 부처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매우 힘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원조를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수업체험(修業體驗)으로, 상념정지(想念停止) 즉 공관(空觀)의 연습을 나의 수호신에 의해 끈질기게 강요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상념정지를 열심히 수련한 결과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인간전체가 육체를 가지면서도 아울러서 유·령·신(幽·靈·神)의 각계(各界)에 동시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호령, 수호신이라고 하는, 일순도 쉬지 않고 항상 수호하고 계시는 고마우신 존재까지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이 세계는 제신선령(諸神善靈)에 의해 항상 수호를 받으면서 참된 육체인간 완성의 길을 돌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때의 기쁨이란, 도저히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나의 임무는 만인(萬人)을 위해, 그 사람들의 수호신령과 육체신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수호신령의 수호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의 육체신을 수호신령을 위한 그릇, 장소로서 제공하여 피수호체(被守護體)의 오염(汚染)된 업상념(業想念)을 측면에서 정화불식(淨化佛拭)하는 데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는가 하면, 보통사람은 육체신과 영체의 사이 즉 유체(염체)에 과거세부터 금생에 걸쳐서 만든 상념행위의 오염, 업이 축적되어 있어, 수호신령의 광명이 그 업의 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텅 빈 공(空)이 되어 신령과의 교류를 용이(容易)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육체를 써서, 측면에서부터 신불의 광명을 방사(放射)하는 편이 그 업벽(業壁)을 돌파하기 쉬우므로, 그런 임무를 대신(大神)으로부터 내가 수임(受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정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소서, 라던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라던가 하는 따위로 염(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는 수호신령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그냥 묵묵히 앉아서 무심통일(無心統一)만 하면 된다. 무심(無心)하게 되고 투명(透明)하게 된 나의 육체를 통해서 정화의 광명이 상대방의 유체에 얹혀 있는 오염(汚染)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다.

빛(光)이 상대방의 유체, 육체에 방사됨에 따라, 상대방의 갖가지 업이 정화되어 가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부

더 정화하는 것보다 같은 계층(階層)에 있는 육체신을 통해 빛을 방사 받는 편이 정화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으로 되어, 나의 정화의 효과가 크다고들 말한다.

종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뽐내는 사람 중에는 「타인에게서 정화같은 것을 해 받을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이 내재(內在)의 부처(佛)를 발현(發現)시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자력행(自力行)이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는 그 자신이 한번 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필사적인 대결의(大決意)가 없는 한, 그러한 위대연(偉大然)한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임으로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 일도 정각 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말이라고 해서, 것처럼 용이(容易)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면, 마침내는 상대방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지경에 빠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교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신전령(全身全靈)으로 깨달은 바를 상대방에게 설법하고 또 행(行)케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쓰라린 수업의 결과, 신불과 인간과의 교류를 돕는 일을 수임(受任)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각 상대방이 놓인 저마다의 경계(境界)에 나의 몸을 두어,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신령

의 정화의 광명을 상대방에게 방사한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個個人)의 천(天<완전성>)과 지(地<현실>)를 잇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은 다만 자비(慈悲) 뿐이며, 그 자비를 행하기 위해 무심(無心<空>)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염력(念力)은 아니며, 참된 기념(祈念)이자, 참된 정화의 방법인 것이다. 나의 정화는 한 마디로 말해서 신불의 자비(光明)을 인간에게 중계 하는 작업인 것이다.

문(24) : 어떠한 질병(疾病)이라도 신앙으로 고쳐집니까?

답 :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병(萬病)이 모두 치유(治癒)된다고 할 수는 없다. 질병과 육체수명과는 다르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병에 걸린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석가세존(釋迦世尊)조차도 그러하셨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 신체가 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겠지만 본인은 항상 그 상념을 신불께 전탁(全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질병을 초월하고 있지만, 육체를 벗어 던지고 타계(他계)로 전이(轉移)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영혼이 그 생명력을 육체로부터 차츰 빼내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의 현상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명이 있으면 병은 반드시 치유(治療)되며, 수명이 다 되면 어떠한 성자(聖者)라도 병체(病體)의 모양으로 타계(他界)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삼단(三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 1의 수명, 제 2의 수명, 제 3은 정명(定命)인데, 어떠한 사람도 정명으로 타계한다.

자기의 깨달음에 의해, 또는 영계의 원조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제 1 또는 제 2의 위기(危機)를 초극(超克)했다는 것을 말하며, 정명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보통은 제 1이나 제 2의 위기에 타계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정명까지 완전히 생존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무신앙(無信仰)의 생활보다는 신앙생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편이 이 세상의 생활을 연장(延長)시킬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실로 보람 있는 일이며, 병이 걸

려도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 질병의 고뇌(苦惱)를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술(前述)한 바 있거니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좋으니까 참다운 안심 입명(安心立命)을 얻고 싶다, 신불과 하나로 이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신(入信)한다는 그것이다. 그러한 신앙태도야말로, 커다란 기적(奇蹟)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문(25) : 신앙을 하면 장사가 번창하게 됩니까?

답 : 장사의 번창과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갑자기 장사가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도리어 장사가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장사가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경우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는 이렇게 신불께 열심히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가게는 절대로 번창한다고 하는 확신에 의한 밝은 마음가짐이 손님쪽에 전(伝)해져서, 어쩐지 밝은 가게라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을 끌어 당기는 경우.

둘째,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앙의 정신으로 손님들에게 봉사하자고 하는 정성어린 마음으로 열심히 서어비스하게 되어, 그 서어비스 정신이 가게를 번창케 하는 경우.

셋째, 그 신앙의 대상, 다시 말해서 종교단체나 교회 사찰 등의 영단(靈團)의 힘이 객(客)에게 감응해서 손님을 끌어 당기는 경우.

그러나 셋째의 경우는 선악(善惡)의 두 종류가 있다.

선(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진실로 신불께 전탁(全托)한 그 진심(真心)에 감응해서 고급신령(高級神靈)이 힘을 빌려 주는 경우이며,

악(惡)의 경우는 그 사람이 이욕(利慾)의 생각으로 교단이달지 교회, 사찰등에 헌납하는 금품에 매혹된 저급령(욕망에 날뛰는 인령, 동물령 등)이 손님에게 염력(念力)을 보내어, 그 가게에 객(客)을 끌어당기는 경우이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그런대로 무방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나중에 가서는 실로 난감한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욕(慾)과 욕으로 맺어진 동지(同志)의 결합이며, 거기에 고급

신령이 작용한 것이 아니므로 한 편에서 욕심을 부리면 다른 한 쪽도 욕심을 내는 따위로, 헌납한 금품이 적거나, 그 밖에 언짢은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저급령은 갑자기 염력(念力)으로 그 가게를 멸망시켜 버리고 만다. 그래도 모자라서 저급령측은 점점 더 욕심을 내어 점주(店主)가 아무리 많이 금품을 헌납하는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올려라, 더 내놓아라, 하는 따위로 협박하곤 한다.

그것은 그 교단의 교주(敎主)를 통해 행(行)해지기도 하고, 또는 꿈에 의해 알려지거나, 타인을 통해 알려지거나 장사가 점차 쇠미(衰微)해져 감으로써 알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항상 불안한 지경으로 치달아 가곤 한다.

이러한 결과가 되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릇된 신앙이 무던히도 많다. 그러므로 현재, 그런 따위 신앙으로 장사가 설령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이치를 잘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반성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는 과연 어느 계열에 들어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생각해 봐서 아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종교나 교단의 출입을 바로 그만 두고, 그 당시는 일시 가게가 침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어 그만 두어 버리고, 진실한 종교에 들어 가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장사의 번창의 비결(秘訣)은 봉사정신(奉仕精神<자비>)과 명랑성에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교단의 출입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란 그러한 자비심과 참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26) : 종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불운이나 불행이 많고, 반면 무신앙(無信仰)의 사람이나 악인(惡人)으로 알려진 사람이 도리어 자유롭고 유복(裕福)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답 :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중에는 불운이나 불행, 다시 말해서 질병, 빈곤, 가정불화, 기타 재난 등이 입신(入信)의 동기(動機)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행, 불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종교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운, 불행이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종교의 길에 들어 가려고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육체인

간 이외의 어떤 불가사의(不可思議)의 힘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신불, 악마 또는 업인연(業因緣) 등을 대소간(大小間)에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생활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 마음의 잘못이 있거나 장애(障礙)가 있거나 신불의 벌(罰)을 받고 있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웬지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한 종교의 길을 찾아 내기까지는, 아니 찾아 내더라도, 얼마 동안은 불운이라던가 불행 따위로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마음(想念)이 항상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항상 신불의 벌, 마음의 잘못, 행위의 오류(誤謬), 선조의 장애 등등의 설법에 집착해서 자기의 마음이 자유로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그 생활에 언제까지 가도 자유무애(自由無礙)의 안정된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마음이 약한,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으며, 그 행위에 대수롭지도 않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스스로가 마음을 괴롭혀 가면서 자책(自責)하려 드는 사람이거나 남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조금만 좋지 않게 말하는 경우

에도 바로 마음에 걸리곤 하는 따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종교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대방의 마음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죄과(罪過)를 재책(裁責) 함으로써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지도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운이나 불행이 일시는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또 없어진 뒤에 바로 다시 나타나곤 하는 따위로 언제까지 가도 안정된 생활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마음의 법칙이라면서 설교를 하여도 인연운운하면서 설법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법칙도 활용을 잘 못하면 효과는 커녕, 도리어 역효과 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유심(自由心) 무애심(無礙心)으로 하기 위해, 즉 집착이 없는 광명심(光明心)을 얻기 위함인데도, 사실은 반대로 되어 버려서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도리어 부자유스러운 생활에 빠져 버리게 만드는 요즘의 종교의 흐름임을 어찌하라.

이와 같은 상태만을 본다면, 확실히 물음과 같이 악인(惡人)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무신앙자(無信仰者)

로 보이는 사람들의 편이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적은 만큼, 유유자재(悠悠自在)로운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도리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득(得)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중(僧侶)이 다른 중과 둘이서 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행 도중에 어떤 강(江)가에 당도했을 때, 그 강을 건너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중은 「내 등에 업히시요」 라면서 그 여성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 가서는 그 여성을 내려 놓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걸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른 중은 「너는 중인 주제에 왜 여자를 업었느냐?」라면서 크게 화를 내어 그 중을 꾸짖었다. 그러자 그 중은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을 하면서, 「나는 벌써 여자를 내려 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등에 업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선 꺾 꺾 웃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로 재미 있는 이야기로서, 마음에 집착을 가진 사람과 집착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差異)를 명시(明示)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마음에 깊숙이 집착을 쌓아 가는 종교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행(惡行)을 하여 나가더라도 갑자기 깨닫고서 참된 종교에 귀

의한 대악인(大惡人)에게는 당해 낼 수 없다. 왜냐 하면, 대악인(大惡人)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과감히 아무런 집착 없이 사물(事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과거세의 인연에 따라 악행은 했지만, 그 악행도 과감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홀연(忽然)히 깨닫고 참된 종교에 들어간 뒤로는 일일이 사소한 일에는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과감히 신불의 품안에 흘랑 뛰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종교의 길이란 본심(신불의 마음)과 업상념(業想念)과를 명백히 구별해서, 업상념은 모두 「소멸되어 가는 모습(현상)」으로 해서 과감히 떨쳐 버리고 오직 본심 하나, 신불심(神佛心) 하나로 전념(專念)하면서 생활하여 가는 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업상념인 분노, 질투, 원한, 비애 등등의 파동을 일일이 붙잡아 가지고 내가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등으로 마음을 괴롭혀 가는 것은 도리어 반종교적(反宗教的)인 생활태도인 것이다.

신불의 마음에는 악도 불행도 과오도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오로지 진선미(真善美)와 조화(調和)만을 자기의 진짜로 알고 살려 나가야 하며, 다른 어떠한 상념행위도 「과거세부터의 그릇된 생활태도의 파동이 꺼져 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과감히 떨

어 버리고서 절대로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내가 제창(提唱)하는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의 활용이 매우 대견한 행사로 되는 것이다.

문(27) : 하느님(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실제로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며 알게 하기 힘든 것은 없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것처럼 알기 쉬운, 아니 설명조차 필요 없는 것도 없다. 왜냐 하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이 알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하여 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생명(生命) 그 자체이며 생명의 근기(根基)라 할 수 있다. 이 생명은 무한의 지혜, 무한의 힘, 무한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생명(大生命)이라고도 부른다.

대우주(大宇宙)의 일체만물(一切萬物)은 이 대생명의 진동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이 대생명의 마음의 진동(파동) 이외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절대자(絕對者)라고도 부른다.

절대자는 그 작용 가운데 음양(陰陽) 즉 플러스와 마

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음양의 작용에 의해 만물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절대자가 음양으로 갈라져서, 무수(無數)한 존재자, 존재물이 되며, 절대자 자신의 모습을 그 존재자, 존재물 속에서 우러러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인 대생명의 분생명(分生命)인 인간은 자기의 내부에 하느님을 존재시키고 있으며, 내부의 신이 외부의 제신(諸神)과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직령(直靈)이라 하며, 그 파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령(分靈)이라고 하며, 그 직령, 분령의 작용을 본심(本心)의 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직령, 분령의 작용을 똑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활동(작용)하고 있는 것이 수호신이며, 수호령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알든 모르든, 하느님은 전부의 전부이며, 인간은 하느님의 소생으로서, 선조(先祖)의 깨달은 영(靈)인 수호령과, 직령의 반면(半面)의 작용인 수호신의 가호(加護)를 항상 받고 있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느님은 일(一)이자 다(多)이며, 다(多)가 모두 일(一)인 하느님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一인 하느님의 작용과 다(多)인 하느님의 모습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느님을 설명한다면, 하느님은 대광명(大光明)이며, 그 나타남(顯現, 現象)은 메아리인 것이다. 메아리란, 또 울림, 진동, 리듬, 파동……등을 뜻한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은 모두 하느님의 마음의 파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둔다. 산천초목(山川草木), 충어조수류(虫魚鳥獸類), 인류(人類) 등, 그 뻗어 나가는 힘, 육성(育成)의 힘은 모두 하느님의 소유(所有)인 것이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느님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예(例)를 들어 말한다면, 장미 나무에 장미 꽃이 피는 것은 아무런 이상(異常)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하면 그 당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 어떠한 신묘(神妙)한 깊은 내용이 있으리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장미꽃을 피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겨울 동안의 시들고 마른 나뭇가지의 도대체 어디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요소(要素)가 들어 있었다는 것일까? 한 번

깊이 생각하여 불만한 일이다.

인간의 갓난아이의 경우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 원형(原形)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정자(精子)와 난자(卵子)였던 것이, 어느 사이엔가 자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들의 사고력(思考力), 우리들이 호홉한다는 것, 심장, 폐장 등을 움직여 주는 힘……등등,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에 의한 힘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심장의 고동을 좀 더디게 치도록 하자, 내일은 더 빨리 치게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原動力)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원동력이 바로 하느님인 것이다.

「하느님」이라는 말이 언짢게 생각되는 사람은 굳이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라고도, 자연이라고도, 대자연이라고도, 대생명이라고도, 신불(神佛)이라고도, 여래(如來)라고도, 부처님이라고도, 절대자라고도, 무한자(無限者)라고도……기타 아무렇게 말해도 된다. 어떠한 호칭(呼稱)을 하건 그건 무방하지만, 그것은 역시 모든 힘의 원동력으로서, 절대자적(絕對者的) 힘, 창조자로서, 엄연히 그리고 영원히, 이 우

주간 어디에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랄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관념적(觀念的)인 상념에 붙잡혀서, 도리어 자기의 생명의 작용을 부자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자기의 힘에 벅찰 정도의 어떠한 사건을 당하거나 어떠한 기적적(奇蹟的)인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불이 작용한 것이라고 속단(速斷)해 버리는 사람이 종교를 하는 사람에게 꽤 많은데, 신불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긴 하지만, 그것은 법칙으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칙을 어기고 있는 채, 신불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법칙을 어기는 생활을 하면 법칙을 어긴 만큼의 왜곡(歪曲)된 신불의 모습, 이른바 업상념의 현상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하느님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하느님을 요약(要約)해서 말한다면, 하느님은 역시 인간의 생명의 본원(本源)이며, 절대자이며, 법칙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수호의 신령(神靈)으로서의 구제면(救濟面)의 작용

을 하시는 존재인 것이다.

문(28) : 죽음(死)을 겁내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답 : 죽음이 겁나지 않게 되는 것은 누구나 염원
(念願)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확
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은,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때는 의외로 죽음으로
뛰어 들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하여 겁장이가 되곤 한다. 전쟁 중에 전화(戰火)
속을 용맹 과감하게 돌진했던 군인도 일상생활 중에는
역시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들이 인간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육체신은 실
은 인간의 하나의 나타남(顯現)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생
명은 육체 이외의 다른 체(體), 즉 육체신보다 훨씬 미
묘(微妙)한 파동(波動)을 가진 유체라거나, 영체라거나,
신체라거나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에테르체라거나,
아스트럴체라거나, 멘탈체라거나, 부디체라거나 하는 따
위 갖가지 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死)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기가 육체
파동에서부터 보다 미묘한 다른 생명 파동으로 이동
해서 활동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요긴(要緊)한 일이지만, 이성과 같은 설명만으로는 「아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별 것 아니군요」 하는 따위로 간단하게 생각을 전환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을 자세히 인식하고(본서의 본문 참조), 주어진 환경에서 성심성의껏 생활해 나간다면 육체신을 초월한, 이른바 사후(死後)에는 육체신의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 넣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데 대한 공포와 사후세계(死後世界)의 불명(不明)한 점에 있는 것이므로, 사망은 타계(他界)에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일심전력, 착한 생활을 하여 나가기만 한다면, 보다 훌륭한 세계로 진출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죽음을 겁내는 마음이 희박해지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은 신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신불의 마음은 곧 자비(慈悲)이므로, 신불이 인간에게 좋지 않게 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신불의 마음안에 항상 자기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실한 신앙심이란 신불이 벌(罰)을 내린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자기의 행위에 약간의 과오(過誤)가 있었다 해서 그것을 두려워 하는 따위 신앙태도여서는 안 된다. 진실한 종교 신앙자는 자기가 신불의 분생명(分生命)임을 인식하고, 신불의 대자대비(大慈大悲)속에 자기의 전부를 맡겨 버리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도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불에게 전부를 맡길 생각도 없는 애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불의 대애(大愛)를 믿고, 신불에의 전탁귀의(全托歸依)의 수행 생활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신불을 다만 신불이라 부르지 않고 수호신이라 부르며, 또 조상(祖上)의 깨달은 영(靈)을 수호령이라 하여, 이 수호의 신령이 언제나 당신들을 수호하여 주시므로, 부질 없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수호의 신령께 감사 드리면서 인사(人事)를 다하여 생활하여 가면 된다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곁에 수호의 신령이 항상 계셔서, 자기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모른다. 이 수호의 신령은 그 피수호체(被守護體)를 출생시부터 사후의 세계까지도 따르고 계시므로 수호신께 사후(死後)의 일까지도 부탁드리고 있으면 이 처럼 안심되는 일은 없다. 수호신은 당신들을 육체계의 환경 이상의 세계로 데려다 주시는 것은 틀림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보증한다.

그것은 내가 술한 실례(實例)로 확인한 것이다. 나는 수호의 신령과는 완전히 하나로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신불의 활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는 이상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여 나가면, 반드시 비상한 효과가 있으므로 꼭 실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계 평화의 기념(祈念)을 속행(續行)하여 나간다면 당신의 생활은 반드시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는 바이다.

문(29) : 사진으로 정화(淨化)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질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답 : 보통 사람이 사진을 보면 다만 그 사람의 형상(形象)만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

가 보면 사진은 그 사람의 전부가 찍혀 있다. 전부가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 운명의 파동도 형상자태(形象姿態)와 마찬가지로 그 사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육체 자체도 사실은 빛(光)과 상념의 파동의 현현(顯現)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의 영상(映像)은 방송국에서 연출되고 있는 그 실체(實體)가 빛(光)의 파동에 의해 거기에 나타내어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한다면, 이 육체인간 자체는 인간의 실체인 빛과 그 동중에서부터 나타난 상념파동과의 합체(合体)가 육체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파동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고체형(固體形)으로 보일 따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체는 대신(大神) 자체와 똑같은 광체(光體)이지만, 이 지상계(地上界)에 육체로 나타나기 위해, 갖가지 상념의 파동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육체로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단 육체를 창조해 낸 인간은, 지상계라고 하는 물질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이 지상계의 신불의 이념을 형상(形象) 위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이른바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창설하려 했던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경과(時間經過)

와 갖가지 체험을 쌓지 아니하면, 좀처럼 하느님의 이념인 지상천국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마침내 물질문명의 최성기(最盛期)에 이르러, 이윽고 육체인간이 인간의 본질인 광체(光體)로 환원해서, 현재까지에 건설되어 온 물질문명 위에 지상천국을 창설할 수 있는 기운(機運)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데도 일반사람들은 아직도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일반사람보다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일반대중에게 그 원리를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느님으로부터 수임(受任)하고, 오늘날의 구세운동(救世運動)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이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의 운동이다.

그런데, 제일 요긴한 일은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靈)인 빛과 상념파동(想念波動)이 혼합(混合)되어 형성된 존재라는 진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가장 쉽고도 효가 있는 방법은, 아직도 인간을 육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상념파동 속에 신령의 광명을 보내어, 그러한 그릇된 상념을 소멸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것이 나의 여래인(如來印)과 손뼉에 의한 정화이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나의 일생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몇 장이라도 지인(知人)의 사진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사진에 의해 정화(淨化)하기도 하고,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을 확대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사진으로 정화하는 것보다는 본인을 직접 만나서 정화하는 편이 효과는 더 있지만, 사진에도 그 사람의 전부가 나타나 있으므로, 신불의 빛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사진에 찍혀 있는 그 사람의 파동을 타고 그 사람의 업상념파동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는 똑 같으며 다만 약간 복잡할 따름이다.

업상념파동을 광파로 정화하면 마치 크리닝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이 깨끗해져서 병도, 성질도 틀림 없이 고쳐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영성의 세탁소인 셈이다.

이러한 이치이므로 본인도 오지 않고 사진도 없을 때도, 오로지 이 쪽을 향하여 상념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 쪽의 빛은 그 사람의 상념과 파장(波長)에 맞춰서 흘러 가므로 역시 효과는 있다.

문(30) : 신불이 완전원만한 존재이며 인간이 신불의 소생(所生)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惡)과 불행이 생기는 것일까요?

답 : 이 문제는 “신불이 대자대비(大慈大悲) 이시며 절대자(絶對者)인데도, 왜 인류의 불행을 건져 주지 않는가” 라는 문제와도 동질(同質)의 것이므로,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답(答)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책의 본문을 잘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모처럼 문제가 제시되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상의 현상(現象)을 보건데, 과연 악과 불행으로 짙어 차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부모, 형제 간에마저도 서로 속이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대립투쟁도 불사(不辭)한다. 이것은 민족간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민족이나 타국의 손실 같은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듯이 악행을 감행한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라 말하던, 신불은 원만완전성이며, 인간은 신불생(神佛生)이다. 그리고 신불의 소생인 인간에게는 악도 질병도 불행도 없으며, 나쁜 마음도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도 없는것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쁜 현상은 신불의 소생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조각상(彫刻像)의 미완성(未完成)의 부분이 차츰 깎여 나

가는 대패밥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 된다.

나는 인간이 신불의 소생이라는 진리를 확실히 체각(體覺)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체의 악마적 행위나 불행한 사태는 모두 인간이 이 지구계(地球界)에서 신불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과정에서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 실지로 악과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요컨대, 이 세상의 악과 불행은 인간의 상념이 그러한 파동을 붙잡고 있는 한은, 악과 불행이 소멸되지 않지만, 그것을 신불의 대자대비(大慈大悲)속에 완전투입(完全投入)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악과 불행은 소멸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실로 신불의 마음 속으로 뛰어 드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다수의 인간은 과거세부터의 업상념의 파동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수시로 그 환경에 괴로운 사태가 현상화(現象化)하곤 한다. 그리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괴로운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세부터의 업상념이 소멸되어 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꺼져 가는 모습과 세계평화의 기념」의 생활을 실천하라고 강력히 체창(提唱)하고 있는 것이다.

예(例)를 들어 설명한다면 가령, 자기가 어떤 사람과 다룬 경우 「아,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한 순간, 아아, 그것은 전부 나의 과거 세부터의 업인연과 상대방의 업인연이 거기에 서로간의 행위로 나타나서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었구나, 옳거니, 이 꺼져 가는 모습을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의 대광명(大光明) 속에 투입(投入)하여, 다시는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멸시켜……는 식으로 반성과 동시에 소멸되어 가는 모습(현상), 또 그 순간에 세계평화의 기념을 염창(念唱)하고 전부를 구세(救世)의 대광명 속에 전탁(全托)한다. 이 때에 전탁과 반성이 합일(合一)하게 된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불 그대로의 생활이 전개된다는 것을 나는 보증한다. 인류의 대다수가 이러한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때가 바로 악과 불행은 영원히 없어지고 지상천국(地上天国)을 구가(謳歌) 할 수 있는 밝은 내일이 약속되는 시기(始期)인 것이다.

세계평화(世界平和)의 기념(記念)

지구세계의 인류는 지금 도대체 행복한 것일까요, 불행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물음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은 지구세계는 지금 불행한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왜 지구세계는 불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대립 상쟁(對立相爭)의 상념에 가득 차 있고, 부조화(不調和),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도,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인류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도, 그러나 현재의 세계는 항상 개인간의 대립투쟁, 국제간의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나라의 현상적(現象的)인 이익, 눈 앞의 이해득실만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타(自他)의 이해(利害), 자국과 타국의 이해가 완전히 하나의 것으로 상호이해되지 않는 한은, 인류의 평화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지구는 완전히 좁아져서, 미소(美蘇), 서구제국(西歐諸國)의 정치정책(政治政策)은 바로 아세아·아프리카 제국(諸國)에 그 영향을 미치며, 아세아·아프리카 제국의 사건은 바로 서구(西歐)와 미·소에 반향(反響)을 가져 옵니다.

오늘날의 개인생활의 행·불행은 바로 국가와 인류의 동향(動向)에 필연적으로 영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개인에게는 단순히 개인만의 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생활의 부침(浮沈)은 국가와 인류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개인이 단독으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바로 국가나 인류가 행복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국가와 인류 전체가 투쟁의 상념, 부조화, 불완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개인의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어느 국가간의 상태를 보더라도 대전쟁(大戰爭)의 조짐을 지닌, 미묘한 분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분위기에 아직 불이 붙여지지 않고 있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언제 천변지이(天變地異)가 돌발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인류가 멸망의 직전에 놓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날의 지

구세계의 분위기 속에서 참된 행복생활을 하여 나가
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개인의
행복은 아무래도 세계인류의 행복과 직결되지 아니
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차제에 개인과 인
류를 하나로 생각하고 그 관점(觀點)에서 일체(一切)
의 행동을 하여 나가면 어떨까 하고 나는 생각했던 것
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제창(提唱)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기
념(祈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인류가 평화하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개
개인이 평화로운 환경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개인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 바로 세계 인류의 평화가 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전연 그 반대이며, 참된 평화는 개
인의 마음에도, 세계인류의 마음에도 아직은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동정(動
靜)과 자기의 마음을 살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
제입니다.

개인도 세계도 항상 불안동요(不安動搖)하고 있습
니다. 현재의 개인의 행복은 그것은 일순 일순(一瞬
一瞬)의 기복(起伏)의 한 장면에 불과하며, 영원한 생

명에 이어지는 안정된 행복은 아닙니다.

진실한 행복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협력해서 이룩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입각(立脚)하지 않는 일시적인 행복감 같은 것으로는 이 지구세계에 진실된 평화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세계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자기들이 하나(一)인 대생명(大生命)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있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와 타인은 따로 따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신불의 생명을 찢어 발기는 듯한, 그야말로 인류애(人類愛)에 어긋난 생활을 하기 시작한 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습성화해서 자타(自他)의 차별관이 추호의 뒤바꿈도 할 수 없는 업(業)의 파동으로 화(化)하여, 인류전체가 거의 완전히 자아욕망의 상념에 사로잡혀, 자기나 자국의 이익에 협력하지 않는 타인이나 타국을 적대시(敵對視)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복잡미묘한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5 인이나 10인의 위인(偉人)이 나와서 진리에 따른 정치를 하고자 하여도, 업상념의 파동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 진리를 실행하여 나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세계는 이제 소수인(少數人)의 활약만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시대로 되어 버린 관계로, 아무래도 많은 대중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힘을 총동원 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세계평화 실현의 길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계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계평화가 실현되는가는 이 혼미한 세계정세에 처해 있는 일반대중은 알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수반하지 않고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세계평화에의 길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힘들이지 않고 꾸밈없이 하나로 되는 방법, 자타(自他)의 이해를 구별하지 않고 저절로 자타일체관(自他一體觀)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부당(不當)한 이익을 생각하는 상념을 일단 던져 버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입니다.

나는 인간과 그 참된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은 업생(業生)이 아니라, 신(神)

의 분생명(分生命<분령>)이며, 항상 조상(祖上)의 깨달은 영(靈)인 수호령(守護靈)과 수호신(天使)에 의해 수호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뇌(苦惱)는 인간의 과거세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그릇된 상념이, 그 운명으로 나타나서 소멸되어 가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現象)이다.

어떠한 고뇌라 할지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므로, 꺼져 간다고 하는 굳센 신념과 이제부터 잘 되어 간다고 하는 선념(善念)을 일으키고,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도, 차기를 사(赦)하고 남을 사(赦)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른바 사랑(慈愛)과 진실과 용서(容恕)의 언행을 계속하여 나감과 동시에 수호령, 수호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을 속행(續行)하여 나가면, 개인도 인류도 참된 구원(救援)을 체득(體得)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세계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대한민국(조국)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우리들의 천명(天命)이 이룩되도록
수호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수호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쉬운 염창(念唱)속에 개개인(個個人)의 모든 상념을 완전투입(完全投入)하고, 그 기념(祈念) 속에서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계속하여 나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타적(排他的)인 마음이 거의 없어져서, 개개인의 인격이 완성됨과 동시에 세계인류의 행복을 염원(念願)하는 인류애(人類愛)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인류의 모두가 이상(以上)과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세계평화의 기원(祈願)을 생활화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세계인류가 멸망에서 건져지고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개인생활이 평화로와짐과 동시에, 세계인류의 평화달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세계평화의 기념(祈念)이야말로 현재 세계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요긴(要緊)한 최선(最善)의 일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저 자 소 개 : 五井昌久 (고이 마사히사)

1916년 토오쿄오에 태어나다. 1949년 아신일체를 경험해서 각자(覺者)가 되다. 白光真宏會를 주재. 기도으로써 세계평화 운동을 제창하여 일본 국내외에 공명자 다수. 1969년 5월, 브라질의 권위 있는 단체 올덴·도스·카바레이로스·다·콩쿨지아로부터 종교와 철학의 탐구자,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열렬한 운동을 전개하는 인도적 사상가로서 코멘 다들의 칭호와 훈장을 받았다. 1980년 8월 귀신하다. 저서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잇는 자」 「석가와 그 제자들」 「노자 강의」 「성서 강의」 「五井昌久 전집」 등 다수.

발행소 안내 : 白光(백광)이란 순수하고 무애하며 맑고도 맑은 빛, 인간의 높은 경지에서 발하는 빛이다. 白光真宏會出版局은 이 백광을 자기 것으로써 삼고 일하는 보살심(菩薩心) 그대로의 인간을 기르기 위해 출판물을 이 세상에 보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神과 人間

定價1,200円

1953年 5月 20日 初 版

1988年 3月 30日 韓国語版 初版

原著者 五 井 昌 久

編訳者 林 鶴 凡

発行者 高 橋 英 雄

印刷所 加賀美印刷株式会社

発行所 白光真宏會出版局

市川市中国分 5 - 26 - 27

東京 千代田区内神田 1 - 15 - 7

出張所 振替 東京 2・151348

電話 03 (2 9 5) 0 4 5 6

破本・落張本은 交換해 드립니다.

Printed in Japan ISBN4-89214-087-2